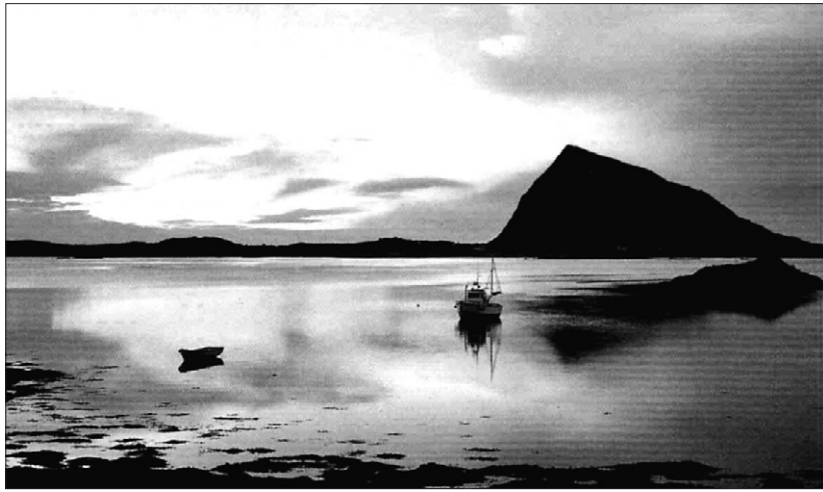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윤회와 열반 양면에서

본래의 자유로움이 아이들의 놀이와 같으니

목적없는 마음을 지니도록 해라

우리가 끊임 없이 윤회계에서 방황하는 것은 우리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집착하는 이 감정, 존재의 매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감정의 근원을 검토해 보면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최소한의 흔적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텅 비어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열반은 무한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근원적인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 마음 안에 내재돼 있는 것으로 새로 개발하거나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수행의 과정 중에 드러납니다. 궁극적인 관점에서는 깨달음의 특성들도 비어 있습니다.

‘윤회’와 ‘열반’은 둘 다 비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때 당신은 윤회계를 거부하거나 열반을 쫓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단순한 어린 아이의 꾸미지 않는 그대로의 단순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됨으로 아름답고 추한 것, 좋고 나쁜 것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탐욕과 혐오에 의해 벌어지는 모순된 의도에서 희생되지 않게 됩니다.

왜 당신의 일상생활의 부침 속에서 자신을 괴롭힙니까? 마치 아이가 모래로 성을 만들고 그것이 부서질 때 우는 것 처럼요. 원하는 것은 얻고 싶어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고통 속에 몰아넣고 괴롭히는지 잘 보십시오. 마치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꿈 같은 ‘미혹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결사, 사회화는 성공, 내실화는 한계

추진본부, 정진 500일 기념 야단법석서 결사 2년 평가

2012년 3월 28일 입재한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이 8월 12일로 꼭 500일을 맞았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과 2주년을 맞은 결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8월 12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생명평화 1000일 정진 500일 기념 야단법석’을 열고 결사 2년과 정진 500일에 대해 평가했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야단법석에서는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김재영 동방불교대학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위원, 윤남진 소설리서치&멘토르 공동대표, 박기림 불교포럼 사무총장, 정용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결사 2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자들은 자성과 쇄신 결사가 진행된 2년동안 사회적 실천에 대한 담론화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종교평화 선언’이었다. 또한 노동위원회 설립과 이어진 동사법 철폐, 무차대회 등은 이전 불교가 보여주지

못했던 지점들을 생명 평화의 정신에 입각해 담론화한 중요한 사례였다”며 “사찰은 영유권회 구성 등 몇 가지 중대한 제도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불교가 어떤 실질적 노력과 실천을 했는가를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출가 구성원에

노동위 설립, 무차대회 등

사회 실천 행사는 많았으나

세부·구체적 실천은 미진해

“출가제도 손질 필요” 지적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모집 위주의 출가제도를 탈피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흥선 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 “결사의 초점은 출가 대중에 맞춰있다. 1만여 명에 불과한 출가 대중으로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결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출가자는 현격히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는 8월 12일 생명평화 1000일 정진 500일을 맞아 결사의 성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 남행자 45%, 여행자 42%가량이 40대 중후반이었다. 학력 수준도 일반 사회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 같은 구성원들을 이끌고 결사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실상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려는 출가 제도는 실패했다. 스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사부대중에게 털어내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동방불교대학 교수는 조기 불교의 ‘빠리사(Paris, 대중)’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평등하고 자발적인 ‘빠리사’가 초기불교 개혁운동의 주역”이라며 “종단의 권위주의적 지배구조

털어내기’와 ‘자발적 동기의 빠리사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삼으면, 한국불교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결사추진본부는 12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정진 500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천일정진은 우리가 뜻생명의 인력과 행복을 위한 주체가 되어 대승불교인으로 살아가자는 노력이자 부처님의 행(行)으로 돌아가자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순심 씨 등 생명평화 1000일 정진 운영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집행부 인선 작업 본격 시동

총무원장 9인 검증위원 위촉 ... 1차 회의 8월 22일

태고종 제 25대 총무원 집행부 인선을 위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8월 2일 열린 태고종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人事)를 위해서는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울산, 전남, 전북, 서울북부, 충북, 충남, 경기북부, 경남동부, 경기남부 등의 총무원장 9인을 인사검증위원으로 위촉했다.

전국 28개 교구 중 27개 교구 총무원장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도산스님은 “종단은 그동안 인재를 키우는데 인색했지만 선거기간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숨은 인재들

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총무원장 스님들은 교구 인재들을 잘 살펴서 적극 추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교구총무원장 도광 스님은 “총무원장들의 인사직업 참여는 총무원장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이 두 배로 늘어나는 아까운 무거운 지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인사검증위원회 제 1차 회의는 8월 22일 한국불교전승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김주일 기자

불교광장 前 무량회

설정 스님 후보 추대 가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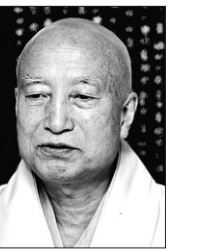
12일 전체회의서 결의

불교광장 내 前 무량회가 제34대 총무원장 후보에 덕승 총림 방장 설정 스님(사진)을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前 무량회는 8월 12일 오후 5시 전체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후보로 설정 스님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3명의 후보군이 추천됐으며, 표결 결과 설정 스님을 추대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설정 스님의 수락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설정 스님은 수행과 인품 면에서 종단 안팎으로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원로 스님이다. 수덕사 문종의 가장 큰 어른일 뿐만 아니라 수덕사 주지와 중앙총회의장 같은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거쳤다. 신종일 기자



불교광장, 후보 검증 갈마위원회 구성

원학 스님 위원장, 9인 구성... 교역직 추대 위원 교체도

불교광장 후보추대위원회가 추천된 총무원장 후보를 검증할 ‘갈마위원회’를 구성했다. 불교광장 후보추대위원회는 8월 12일 제 2차 회의를 열고 갈마위원회 구성 및 일부 교역직 추대위원 교체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갈마위원회 위원장 원학 스님이 위촉됐

으며, 법안스님 성월스님 제정스님 해림스님 법해스님 도일스님(울원) 능혜스님(선원) 계환스님(비구니) 등 9명이 참여한다. 갈마위원들은 추천서가 접수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사안 여부와 5대 추대기준 부합, 소신 정책을 살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교역직 추대위원 중 호계위원회와 범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스님들은 교체기로 했다.

회의 직후 불교광장 대변인 덕문 스님은 “후보 검증위원회를 갈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검증을 통해 각종 사안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오늘부터 26일까지 총무원장 후보 추천을 받을 것이며, 종도들의 정책 제안도 함께 접수한다. 추후 이와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동아시아에서 한국전쟁: 정전체제에서 지역 평화체제로

Locating the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East Asia: From the Cease-fire to Regional Peace System

일시 : 2013년 8월 28일(수), 오전 9:30 ~ 오후 6:00

장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주최 :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 / 주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축사 : 원산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주지)
- 사전행사 : ‘평화의 불’ 이운식 상영 - 선묵해자 스님(서울 도선사 주지)
- 사회 :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 /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 참여하는 사람들

수불스님(범어사), 석길암(금강대), 박병기(한국교원대), 이도흠(한양대), 최재묵(영남대), 박경준(동국대), 유승무(중앙승가대), 부르스 커밍스(Bruce Cumings, 미 Chicago大),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일본 東京大), 왕후이(汪暉, 清華大), 추리시(朱立熙, 대만국립정치대학), 박명림(연세대), 조희연(성공회대), 문정인(연세대), 전현수(경북대), 백원담(성공회대), 정옥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와카바야시 치요(若林千代, 오키나와대학)

- 특별순서 : 동아시아 지식인 공동성명서 발표 (진행 : 백도명 민교협 상임의장)

문의 :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
http://www.budpeace.org/ Email : kppf@budpeace.org

중양: 선묵해자스님. 좌측: 커먼 싱 라마 주한 네팔대사. 우측: 네팔불비니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아차라야 카르마상 셀파스님.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국제세미나

60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